

23년 보시바라밀 실천행

불교 접하고 삶이 변해

정씨는 봉사하러 다니면서 꾸준히 금강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을 정도로 신심이 돈독하다. 20년이 넘는 동안 거의 매일같이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경전 독송과 사경, 화엄신중단 기도를 빼놓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 108배도 했지만 몇 년 전부터는 체력적으로 힘들어 중단했다. 지방에 갈 일이 있거나 여행을 가게 되면 경전만이라도 읽어려고 꼭 챙겨간다.

물어보면 그에게 기도와 봉사는 둘이 아니었다. 처음 가정에 우환이 생겨 절에 다니기 시작했을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이처럼 열성일 수 있었던 까닭은 그를 통해 자신이 치유되어 갔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을 대하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타인에게 봉사하며 스스로에게 생명력을 부여해나갔다.

“불교를 접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죠. 원래 몸도 약한데 다가 마음도 건강하지 못해 보는 사람마다 힘이 없어보인다고, 얼굴에 화색이 하나도 없다고들 말했어. 하지만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수줍음을 많이 타던 성격도 바뀌었고 가리던 음식도 많았는데 이전 안 그랬요. 작고 가냘프던 목소리도 좀 더 굵어진 것 같고요. 힘들어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온 여동생도 요즘 제게 ‘보고만 있어도 좋다’고 하더라구요.”

360도는 아니지만 아마 240도는 달라졌을 거라며 웃는 정 씨. 힘든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경전을 보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불교는 여전히 그에게 의지처다. 만약 마음을 달래려 절이 아닌 교회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면 아득해지기도 한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도하고 있는 이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 되었을테니 말이다. 그랬다면 남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한 지금과는 달리 타인에게 폐를 끼치고 살고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정 씨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힘들데 부처님 법을 만나기는 더욱 힘들다”는 말을 가슴으로 절절히 느끼고 산다고 말한다.

20여년 동안 진잔히 변해온 그의 삶은 자녀들에게도 귀감이 됐다. 1994년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생기고 장기 기증 인식이 사회적으로 저변화되지 않았을 때도 그는



1995년 불교간병인협회 소속 봉사단원으로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불교간병인협회 초대회장 정진 스님이다.

선택 뇌사시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다. 그게 1995년의 일이다. 거부감은 없었다. 죽으면 그쁜 육체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가족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에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으나 하나같이 만류하고 나서 설득을 거듭했다. 2년 후에는 오히려 자녀들이 장기기증서약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왔다. 이들은 골수 기증 등 룩까지 마쳤다. 얼마 전에는 자녀들이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생 나눔을 실천하고 살아온 어머니의 삶을 보고 감화를 받은 것이다.

정씨는 지금도 꾸준히 봉사를 다니고 있다. 월요일에는 목욕봉사, 목요일에는 제기동 동부시립병원에서 병원 일을 거든다. 2005년부터 해왔으니 벌써 10년째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불광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본다. 서울대병원에서 14년간 해온 봉사는 병원사정상 12월로 마무리돼서 너무 아쉽다고 했다.

봉사가 중독적인 것 같으며 봉사를 못가는 날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하다는 정 씨. 더 많이 꾸준

히 하고 싶는데 하루하루 몸이 달라지는 게 걱정이다. 나이가 더 들면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봉사를 그만둬야 할 텐데 그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아쉬워진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봉사하러 다닐 때 교통비마저 부담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도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받기며 잡은 손을 놓아주지 않던 사람들, 정이 고프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삶의 상처도 치유되어갔다. 특별히 아무만지지 않고 함께 온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일주일 내내 봉사했던 적도 있어요. 피곤했지만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나를 보며 웃어주는 이들, 반갑다며 인사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다니거죠.”

그들의 미소를 떠올리는지 정형자 씨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매주 금요일이면 불광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2005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였던 대오 스님은 재단소속 장기 봉사단원이었던 정형자씨에게 공헌패를 수여했다.

전법일기

인심을 얻는 것도 포교

이곳 동네의 반장님 부부는 신심이 돈독하여 초하루와 보름법회에는 꼭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는 분이다. 여기에 절이 생기기 전에는 멀리 속리산으로 다녔는데 이제는 나이 때문에 힘들다고 우리 절로 오셨다. 절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몸이 불편한 부인을 부축하고 반드시 다녀가는 일등 불자다.

이번 가을의 특별법회에는 수 백명이 몰려 주차대란이 일어나서 마을버스도 지나가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경찰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지만 내심 동네 주민의 원성을 살까봐서 걱정하였는데 항의전화 한 통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동네사람들이 감수해 준 것은 평소 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에 처음 와서 절을 짓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인사한 곳이 마

이기 위해 동짓날은 팔죽을 쑤어서 마을회관을 방문하고, 해마다 농한기 때는 버스를 제공하여 아우회도 다녀오길 권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에 위문품을 주는 일도 잊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동네에서 좋은 평점을 받아야 때사에 시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을의 특별법회에는 수 백명이 몰려 주차대란이 일어나서 마을버스도 지나가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경찰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지만 내심 동네 주민의 원성을 살까봐서 걱정하였는데 항의전화 한 통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동네사람들이 감수해 준 것은 평소 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에 처음 와서 절을 짓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인사한 곳이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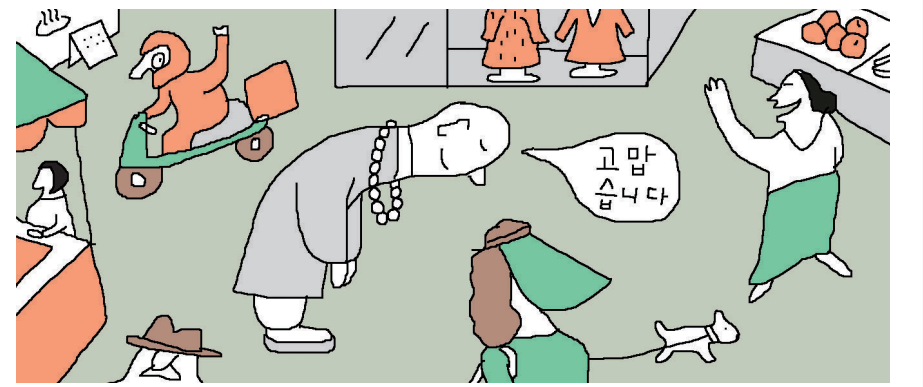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을 가장 집과 반장 집이다. 지금도 명절에는 과일이나 떡을 주면서 꾸준하게 정을 나누고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도 하지만, 마을의 인심을 얻는 것이 첫 번째 포교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절이 이웃에게 인심을 잃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면 받는다면 전법도량으로서 별 의미 없다.

이웃의 어떤 절에서는 동네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절 진입로를 막고, 그 스님은 이장과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동네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처음도 그랬지만 지금도 동네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 사월초파일에 봉축예능을 설치하면서 절 진입로가 있는 큰 길까지 장엄등을 연장하려 했으나 종교가 다른 몇몇 분들이 반대하여 그 계획을 접었다. 나는 조그만 일이라도 마을 사람들과 다투거나 얼굴 붉히기 싫다. 뭐든 순리대로 안 되는 일이라도 기다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무슨 일이든 서둘다보면 실수하게 되고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용한 전법을 하고 싶어 서다.

이렇게 민심은 어려운 위기의 상황일 때 발휘되는 경우가 많다. 전법의 대상은 가까이에도 늘 존재한다. 멀리서 오는 세 사람의 신도보다 이웃의 한 사람이 훨씬 소중한 포교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가까이 살면서 원수처럼 지낸다면 그 또한 종교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까호호 방문하면서 정도하는 것보다 이웃에게 보다 친절하려고 애쓰는 것이 나의 포교론이다. 여기 시골의 종교현황은 절에 다니는 가정이 3분의 1이며, 동네교회 다니는 가정이 3분의 1이고 나머지는 그 어느 곳도 다니지 않는 분들. 그러나 동네의 분위기는 절이 가까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지 않은 편이다.

마을길을 산책하는 게 하루일과인데 가끔씩 동네 이웃들과 만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무조건 먼저 인사를 건넨다. 반갑게 화답하는 분도 있지만 무표정한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큰소리로 인사를 하는 것은 안면을 익히고 말문을 트는 것이 가장 순서인 전법의 방법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민심은 어려운 위기의 상황일 때 발휘되는 경우가 많다.

이웃의 어떤 절에서는 동네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절 진입로를 막고, 그 스님은 이장과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동네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처음도 그랬지만 지금도 동네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 사월초파일에 봉축예능을 설치하면서 절 진입로가 있는 큰 길까지 장엄등을 연장하려 했으나 종교가 다른 몇몇 분들이 반대하여 그 계획을 접었다. 나는 조그만 일이라도 마을 사람들과 다투거나 얼굴 붉히기 싫다. 뭐든 순리대로 안 되는 일이라도 기다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무슨 일이든 서둘다보면 실수하게 되고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용한 전법을 하고 싶어 서다.

이렇게 민심은 어려운 위기의 상황일 때 발휘되는 경우가 많다. 전법의 대상은 가까이에도 늘 존재한다. 멀리서 오는 세 사람의 신도보다 이웃의 한 사람이 훨씬 소중한 포교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가까이 살면서 원수처럼 지낸다면 그 또한 종교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까호호 방문하면서 정도하는 것보다 이웃에게 보다 친절하려고 애쓰는 것이 나의 포교론이다. 여기 시골의 종교현황은 절에 다니는 가정이 3분의 1이며, 동네교회 다니는 가정이 3분의 1이고 나머지는 그 어느 곳도 다니지 않는 분들. 그러나 동네의 분위기는 절이 가까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지 않은 편이다.

마을길을 산책하는 게 하루일과인데 가끔씩 동네 이웃들과 만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무조건 먼저 인사를 건넨다. 반갑게 화답하는 분도 있지만 무표정한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큰소리로 인사를 하는 것은 안면을 익히고 말문을 트는 것이 가장 순서인 전법의 방법이라서 그렇다.



현진 스님 (현원 마야사 주지)

여기에서 마을 주민들과 친밀도를 높

영산불교에서 '붓다의 3신'의 진실을 밝힌다

붓다의 실존과 위대함의 징표인 붓다의 법·보·화 3신을 말한다



현진사 대적광전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 인격적 형상을 가진 원만보신들의 모습으로 모셔놓았다

부처님은 계신다

부처님은 우주법계의 가장 깊고 높은 차원인 '무아속 절대계'에 계십니다. 이를 <화엄경 노사불품>에서는 연화장세계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실존에 대한 진실은 전불교사를 통해 부정된 적이 없지만 한번도 교학상으로나 수행상으로 전면에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실존을 사후해은 현시사에서, 부처님 실존과 위대함의 징표인 부처님의 3신설을 교학과 신행과 수행의 전면에 내세우고 부처님의 실존과 위대함을 전하에 알립니다.

기존 불교의 3신설의 문제

기존 불교의 3신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기존 불교의 법신은 공성을 증득하면서 얻게 되는 우주의 본체인 공, 마음, 불성, 진여를 말합니다. 이를 완전히 깨친 부처님이 이 공을 자기의 몸으로 한다는 것이 법신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법신의 개념을 영산불교에서는 더욱 깊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둘째, 불교(佛敎)의 핵심은 보신(報身)의 증득에 있습니다. 이것이 법신의 증득 후에 도달하게 되는 불보수행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존 불교의 3신설은 이를 적극적으로 천명하지 못하고 법신의 증득이 곧 보신의 증득이라는

심각한 오해를 초래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공성을 증득하는 삼매가 더욱 깊어지면 우주본체인 공은 빛의 차원으로 드러납니다. 기존 불교에서는 법신을 자성광명의 세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붓다의 법신은 자성광명보다 훨씬 강도나 광도가 수승한 무량광명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공성을 철증한 대수행자가 수많은 생을 바라밀 수행을 통해 증입하게 되는 청정과 환희의 세계이고, 불과를 이룬 대수행자의 여의 지(智)가 우주본성과 완전히 하나가 된 대지(大智)의 광명체입니다. 이 무량광명의 본체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데, 비로자나불은 석가모니부처님의 법신체이면서 모든 부처님의 청정법신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위신력

비로자나불은 인격적인 형상이 없지만 여기에 원만보신이 결합하게 되면 인격적 주체가 되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우주적인 불력을 발휘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원만보신이 결합하게 되면 우주의

성주공공을 죄우하는 창조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만보신

원만보신은 수많은 생을 수행해온 대수행자가 불과를 증득해서 얻는 몸입니다. 이 보신의 증득이 불과의 핵심입니다. 보신은 영혼체와는 다르며, 불과를 이룬 분만이 가지는 몸입니다. 32상(32종호)을 갖춘 대단히 상호단엄하고 아름다운 유행의 몸이고, 무량의 지혜·자비·복덕·위신력과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보신은 찬란한 무량광 빛의 몸입니다.

천백회 화신

화신은 보신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보신의 분신입니다. 보신이 영원한 생명을 지남에 비해 화신은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나타나는 일시적인 몸입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잠깐동안 불상이나 탱화에는 이 화신이 깃들어 중생을 제도합니다. 또 절대계의 붓다가 중생구제나 불법의 흥부리는 대원을 띠고 사바세계에 나타날 때, 보신은 절대계에 그대로 두고 영혼체만 빠져나와 인연되는 중생을 부모로 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몸을 특히 응화신이라고 합니다.

영산불교 3신설의 의의

부처님은 3신을 가진다는 불신론은 부처님에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교학상의 이원입니다. 우주법계의 어떤 존재도 부처님처럼 본체인 공과 완전히 결합한 존재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주의 모든 힘과 질료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우주의 법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입니다. 영산불교의 불신론은 교학상으로만 거론되었던 3신설을 청정법신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기미로 받아 불신을 실제 증득함으로써, 기존 불교의 3신설의 한계를 극복했으며 또 기존불교에서 외면되었던 부처님의 실존과 위대함을 천명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안내

- 현지사 대전분원 정기법회
- 12월 21일 (일), 오전 9시 30분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 유일의 부처님화상에서 불과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53회)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운행됩니다.

문의
춘천본사
 033)243-1787, 1795
대전분원
 042)525-5325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